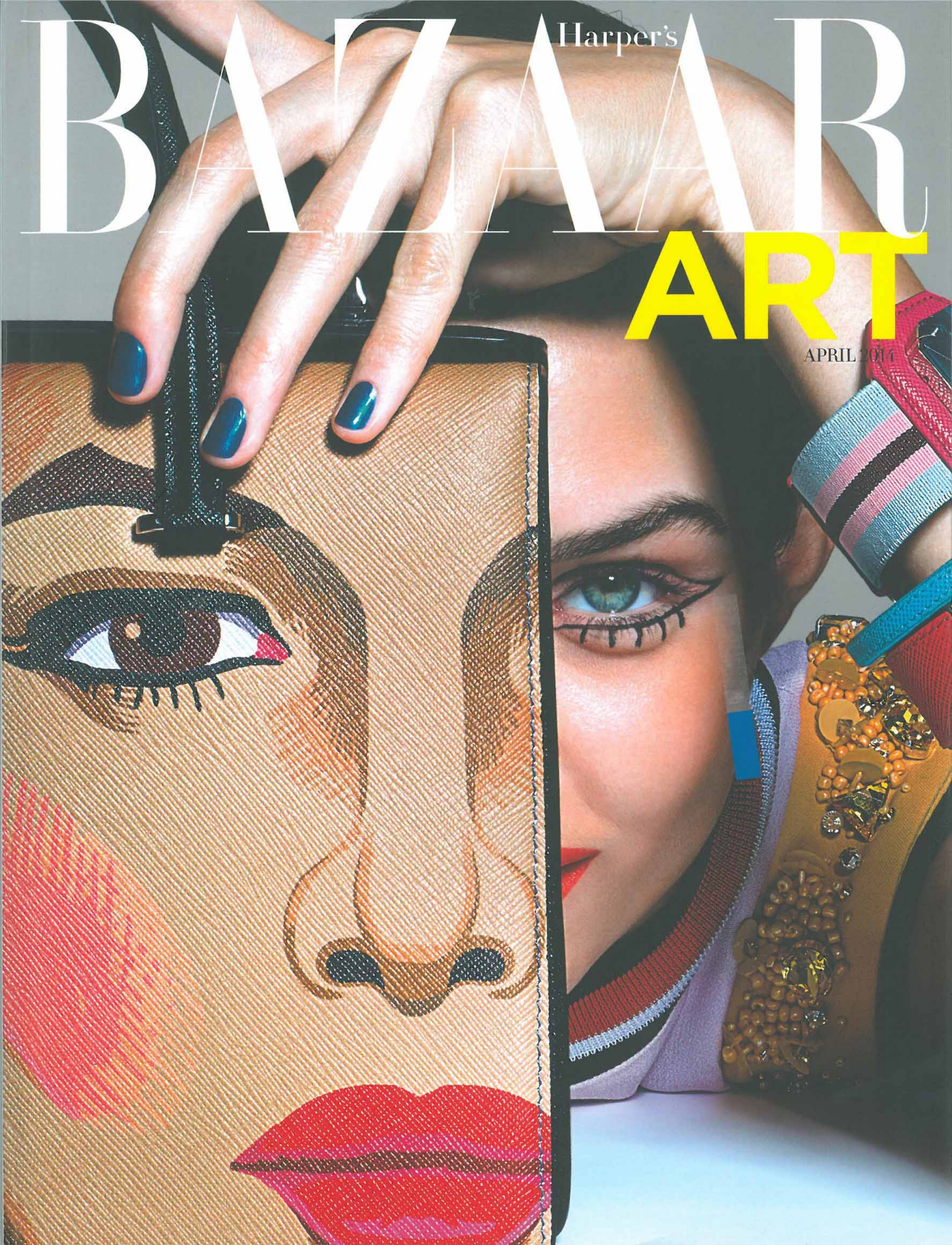


# Harper's BAZAAR ART

APRIL 2014





엄청나게 치밀하고  
믿을 수 없게 냉정한  
**박미나**

박미나 작가의 작업실은 그의 작품처럼 알록달록 형형색색일 거라고 짐작했다. 하나 정작 우리 일행이 발을 디딘 곳은 단출했다. 벽 한 면을 차지한 커다란 장식장에 쌓인 물감 더미만이 그가 색을 중시하는 작가임을 짐작하게끔 했다. 작가는 '색채수집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색을 매개로 한 작업을 여럿 했다. 가장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Orange Painting'이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진행한 이 작업은 국내에서 유통하는 아크릴 물감 중 이름에 '오렌지' 자가 들어가는 물감을 한데 모으는 일에서 출발했다. "서른여 개를 모으고 보니 엇비슷한 게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것도 있었어요. '오렌지'라는 단어로 명명되는 색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학습한 관습을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고체계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싶었어요. 또 물감을 모으는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이 물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있던 색이 사라지는가 하면 새로운 색이 등장했어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물감의 색을 통해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의 시대상을 담아내고 싶었죠."

화이트 큐브에 가까운 그의 작업실에서 유난히 화려하여 눈길을 사로잡는 게 있다. 여러 색의 형광 시트지를 붙인 화장일 문이다. 작가의 말에 귀 기울이던 일행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는 걸 눈치챈 작가가 귀땀했다. 국제 갤러리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에 쓰고 남은 시트지로 작업한 거라고.

"시트지도 마찬가지로요. 간판업자들이 출력을 선호하면서 시트지는 사양산업이 됐죠. 쓰임이 적은 색부터 생산이 중단됐어요. 저 형광 시트지도 지방에 재고로 남은 걸 겨우 구한 거예요. 지금이야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트지가 우리 일상에서 사라진 후 시트지로 만든 제 작품을 본다면 비로소 제가 하려던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작가는 단정하고 여백이 많은 공간이 말해주듯 차분하다. 본인 스스로 '감정의 기복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보통 작가들이 감성적인 성향이 강하기에 오히려 이러한 성격이 신선하게 느껴진다. "자화상을 그리는 작가를 보면 신기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중요하면 자기 얼굴을 그리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영 불편한데 말이죠." 닭살이라도 돋았는지 그가 한 손으로 다른 쪽 팔을 쓸어 내리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히려 제 자신이 컴퓨터 같은 존재이길 바라요.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컴퓨터처럼 누구든 같은 값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공식을 만들고 싶어요." 박 작가는 이성적인 인간답게 객관성을 좇는다. 객관성에 대한 그의 강박이 '당벧 폰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건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는 대학원생 시절부터 색을 모으듯 당벧 폰트를 수집했다. 당벧 폰트는 글자를 그림으로 번역하는 컴퓨터 이미지를 뜻한다. 즉, 주체자가 누구든지 같은 글자를 입력하면 똑같은 결과물 즉, 이미지를 얻는 것이다. 박 작가는 색과 함께 당벧 폰트를 한데 모으고 해체하는 일을 반복하며 작업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성 뒤에 자신의 감성과 감정을 숨겨온 박 작가의 작품세계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한 해를 갈무리하는 국제갤러리 전시에서 첫선을 보인 'Figure'(2013) 연작이 바로 그것. 내용 면에서는 그가 그토록 어려워하던 사람의 내면에 대한 표현이며, 형태 면에서는 추상적 이미지의 조합이다. 작가의 작품은 추상화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작품을 채운 요소들은 하나같이 구체의 산물이었다. "사람을 그리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 한계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스물 두 명을 그리기로 했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직접 그리기보다는 성격을 패턴화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어요." 추상회화의 기법을 활용했으나 인간의 내면마저도 눈에 보이는 유형으로 만들려는 박 작가. 그의 태도에서 또 한번 엄청나게 치밀하고 믿을 수 없게 냉정한 면모가 엿보인다.

글/이주연(자유기고가) 에디터/안동선



'Figure 20', 2013



'111122223333444556677888999000  
AABBFgGjJvVwWx', 2012



'0985555460', 2010

'Figure 30', 2013



“저는 제 자신이 컴퓨터 같은 존재이길 바라요.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는 컴퓨터처럼 누구든 같은 값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공식을 만들고 싶어요.”



'114isMVP&KLN;Hadggfxc^', 2008